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SBS 5년만의 시트콤 ... "하이킥 잡으러 가자"

'도롱뇽도와 그림자 조각단' 27일 첫 선

SBS '도롱뇽도와 그림자 조각단'은 SBS가 2007년 '달려라 고등어'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시트콤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화계에서 개성 강한 연기로 인정받은 오달수와 임원희가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시트콤에 도전한다. 극본은 '순풍산부인과'와 '논스톱'을 쓴 서은정 작가가 맡았다. 16일 오후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승민 PD는 "5년 만에 하는 시트콤이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연기력으로 흡입을 데 없는 배우들이라 제작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부작인 이 작품은 좀도둑 선달과 원삼이 우연히 도롱뇽도사를 사칭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는다. 오달수는 타고난 언변술사이자 '잔머리 천재'인 사기꾼 선달



그룹 사이니의 최민호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천재 해커 민혁을 연기한다. 민혁은 아버지를 죽임으로 몰고 간 정체불명의 인물 'X'의 단서를 찾아 도롱뇽도사를 만나러 갔다가 선달과 원삼을 만난다.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단번에 안 민혁은 진짜 도롱뇽도사를 찾으려고 마지 못해 선달과 원삼을 돕는다. 단막극에 이어 두 번째 연극 도전인 최민호는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좋은 선배들과 작품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좋은 감독과 스태프와 좋은 스토리를 가진 시트콤이라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머니즘 신봉자로 선달과 원삼을 쫓는 월가다 여행사 경자는 류현경이 연기한다. 류현경은 "선배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했다"며 "대본 자체가 재미있고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코믹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도롱뇽도와 그림자 조각단'은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8일(음 12월 25일 戊寅)

- 36년생 생계 수단을 소홀히 하서는 안된다. 48년생 어떠한 때에도 인사는 지나친 것이 낫다. 60년생 긴급한 때에는 경험을 살려 해결하라. 72년생 개구리가 황소만큼 커지기를 원하는 격. 84년생 건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4, 40
37년생 의미 있는 만남이 있다. 49년생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61년생 꾸벅꾸벅 걷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다. 73년생 공을 내세우거나 책임을 전가한다면 입지가 좁아진다. 85년생 산뜻함만으로도 좋다. 행운의 숫자 : 47, 59
38년생 경쟁력을 강화해야겠다. 50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추진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62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리라. 74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4, 01
39년생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실질한 때이다. 51년생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이라. 63년생 근본을 튼튼히 하고 원칙을 준수해야 발전이 있다. 75년생 만족은 천연의 부이니라. 행운의 숫자 : 30, 88
40년생 투명하고 진실 되게 하여야 한다. 52년생 가제는 게 편이 아니라. 64년생 과감하게 용용성을 발휘해야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76년생 삶의 물결기를 바꿀 수 있는 큰 인연을 만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3, 04
41년생 타고난 문명은 인식하되 개혁과 도전 정신을 잃지 말라. 53년생 과거의 유감 있던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돌고꾸를 마련해 준다. 65년생 결점을 보완해야겠다. 77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으나 실속이 없다. 행운의 숫자 : 94, 25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I'm just killing time', '수락석출(水落石出)', and '니하오 쑹구위'. Each column includes a title, a short story or text, and a quiz question in Korean and Chinese.

Advertisement for '신비림' (Shinbireum) featuring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작두 여장군 연화사'.